



2026. 10.16 (금)

AI 자금조달 우려 소폭 완화

- 젠슨황 발언으로 자금조달 우려 관련 지표들의 소폭 완화, 단기 반등 트리거
- 다만 아직 변화 폭이 작아 추세 반전을 생각하기에 지표 움직임 며칠 더 관찰 필요
- 다음주 메타 실적발표가 가장 가까운 주요 일정일 것으로 생각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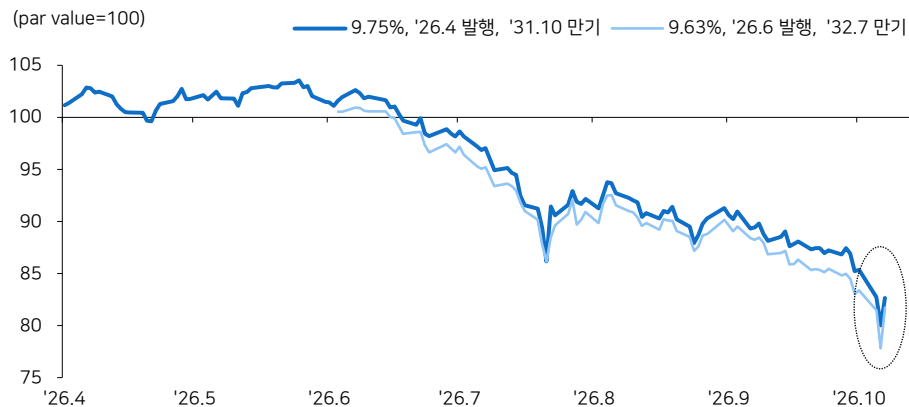
코어위브 무담보 채권 가격은 어제 소폭 반등. 2031년 10월 만기 2026년 4월 발행된 채권은 액면가 100 기준 10월 14일 80.0까지 할인된 이후 10월 15일 82.6까지 반등, 2026년 6월 발행된 2032년 7월 만기 채권의 경우 77.8까지 하락한 이후 81.7까지 반등.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코어위브의 자금 여력 관련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언급에 코어위브 자금조달 우려 완화

코어위브, 오라클 등 주요 기업 CDS 프리미엄도 소폭 하락. 오라클, 코어위브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각각 1,118bp, 288bp까지 상승한 이후 어제 1,087bp, 282bp까지 소폭 하락함

문제가 되었던 코어위브는 최근 GPU·고객계약 담보의 프로젝트 금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이런 흐름이 무담보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 의구심을 키움. 해당 담보와 현금흐름은 우선적으로 담보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일반 무담보채권 투자자는 회수 가능 자산과 잔여 현금흐름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특히 코어위브가 보험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적격등급의 GPU 담보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무담보채 투자자의 회수율 관점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시장 우려를 키웠던 지표들이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 이유가 어찌됐든 무위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자금 조달이 병목인 AI 산업에게 나쁠 건 없음. 여기에 얹어지는 스프레드의 움직임까지 중요한데, 아직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지표 변화 폭이 크지 않아서 반전 여부는 지표 움직임을 며칠 더 확인해야. 다음주 10월 22일 새벽 메타 실적발표가 가장 가까운 관련 주요 이벤트로 생각함. 펀더멘털(AI)은 당연히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 자금조달 이슈 관련 언급에 초점

그림1 코어워브 채권 가격 추이: 저점 이후 소폭 반등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코어워브, 오라클 CDS 프리미엄: 고점 이후 소폭 하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